

# ‘틀’과 ‘영역’에 기반한 ‘긱다, 잘다, 가늘다’의 의미 해석

김억조\*

|| 차례 ||

- I. 들머리
- II. 틀, 영역과 은유
- III. ‘긱다/잘다/가늘다’의 의미
- IV. 틀과 영역에 기반한 의미 해석
- V. 마무리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인지언어학의 틀과 영역에 기초하여 국어 대립어 ‘긱다, 잘다, 가늘다’의 의미 해석에 관해 살펴보는 데 있다. ‘긱다, 잘다, 가늘다’는 대립어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기본의미와 확장의미에서 나타나는 의미 해석의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인 틀, 영역과 은유에 기초하여 대립어 ‘긱다, 잘다, 가늘다’의 의미 해석에 관해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틀, 영역과 은유에 관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3종의 사전에 나타난 의미를 정리하고 4장에서는 ‘긱다, 잘다, 가늘다’의 의미 해석에 관해 살펴 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긱다, 잘다, 가늘다’의 의미는 3차원 공간 개념에서 ‘몸피가 {크다/작다}’를 기본 의미로 가지는데 ‘긱다: 잘다’는 ‘알 모양’에서 대립적이고, ‘긱다: 가늘다’는 ‘막대 모양’에서 대립적으로 사용되었다.

둘째, ‘긱다: 잘다, 가늘다’가 확장 의미에서도 기본의미의 ‘틀’이 그대로 적용되어 ‘주름’은 ‘막대 모양’의 굽기 틀이 적용되거나 ‘알 모양’의 굽기 틀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동국대학교(경주)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굽다, 잘다, 가늘다’가 ‘글씨’와 결합될 때는 한 글자의 획이 넓고 좁음을 나타낼 때는 막대 모양 중에서 2차원 평면이 전경화되어 나타나지만 글자 하나하나를 인식 할 때는 ‘알 모양’으로 인식함을 볼 수 있었다.

셋째, ‘굽다:잘다,가늘다’가 공간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영역 간의 사상이 일어나 은유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목소리, 인생, 행동 등을 나타낼 때 은유적으로 사용됨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관용적 결합 표현에서는 기본의미에서 나타나던 대립적인 의미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대립어인 ‘굽다:잘다,가늘다’가 기본의미로 사용되는 공간 영역에서 ‘틀’과 ‘영역’이 확장되어 확장의미를 가지는데 ‘영역’이 확장될 때 은유로 사용됨을 볼 수 있었다.

주제어 : 인지언어학(cognitive linguistics), 틀(frame), 영역(domains), 해석(construal), 은유(metaphors), 대립어(opposites), 굽다(Gukda), 잘다(Jalda), 가늘다(Ganeulda).

## I. 들머리

이 연구의 목적은 틀과 영역에 기초하여 국어 대립어 ‘굽다, 잘다, 가늘다’의 의미 해석에 관해 살펴보는 데 있다. 국어 대립어에 관해서는 남기심(1974), 심재기(1975)를 필두로 구조의미론적 접근법, 말뭉치 접근법, 화용적 접근법, 인지언어학적 접근법의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구조의미론적 접근법의 핵심은 어휘사전에서 잘 확립된 대립어 쌍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이었다(대표적으로 이승명(1978), 전수태(1997), 임지룡(1989) 등을 들 수 있음). 말뭉치 접근법(corpus approach)은 실제 사

용된 언어 자료인 말뭉치에서 대립어를 추출하였기 때문에 기술적 연구에 유용하며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어 연구의 과학적 접근법으로 간주된다(대표적으로 이광호(2009), 김억조(2012), 이민우(2011) 등을 들 수 있음). 화용적 접근법(pragmatic approach)은 공동체의 문화를 중심으로 인간의 머릿속에서 그 사용 및 지위와 관련해서 고려하는 관점이다(대표적으로 강연임(2006), 문금현(2016) 등을 들 수 있음). 인지언어학적 접근법에서는 어휘 자체의 의미라기보다 인간의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담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원형이론, 환유, 영상도식, 도상성 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인지언어학적 접근법의 현황과 과제에 관해서는 김억조(2019) 참조).

이처럼 국어 대립어에 관해서 지금까지 많은 선행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기본의미와 확장의미에서 나타나는 의미 해석의 문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sup>1)</sup> 또한 ‘굵다’는 ‘잘다’와 대립을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가늘다’가 대립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에 관해 관심을 기울인 연구는 김억조(2012)가 있다. 하지만 기존의 구조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의미 대립 양상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그래서 기본의미와 확장의미를 구분하여 의미 확장 기제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인 틀, 영역의 연구과 은유에 기초하여 ‘굵다, 잘다, 가늘다’의 의미 해석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 연구의 논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틀, 영역과 은유에 관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3종의 사전에 나타난 의미를 정리하고 4장에서는 앞 장의 논의를 토대로 ‘굵다, 잘다, 가늘다’의 의미를 해석해 보기로 한다.

1) 이천택(2017)에서는 한국어 ‘굵다’와 중국어 ‘粗’의 의미 확장 양상을 대조하였는데 본 논의에서 다루는 것처럼 대립어의 관점과는 달리 은유적 의미 확장 양상에 초점이 있다.

## II. 틀, 영역과 은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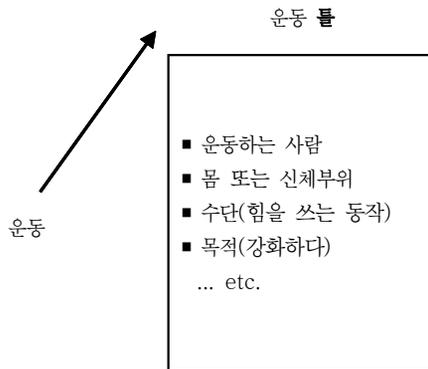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의미는 어떤 특정한 장면(scene) 또는 틀(Frame)과 같은 구조화된 배경에 상대적인 것으로 본다(손영숙·정주리 옮김 2004: 57). ‘육지(land)’와 ‘땅(ground)’이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지만 ‘육지(land)’는 바다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땅(ground)’은 하늘(air)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단어의 의미는 ‘틀’과 관련하여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대다수 단어의 의미는 틀과 틀 요소들에 어느 정도 접근해야만 해석이 가능함을 알 수 있는데 ‘운동’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sup>

- (1) a. 저희 가족은 아침마다 약수터에서 운동하는 것이 일과처럼 되어 있어요.
  - b. 그와는 과거에 학생 운동의 선봉에서 함께했던 친구 사이입니다.
  - c. 광속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운동하는 물체라도 블랙홀을 빠져나갈 수는 없는 일이다.
- (2)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공천반대 운동을 벌이고 이들이

(1a)는 ‘사람이 몸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위하여 몸을 움직이다’는 의미이고 (1b)는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힘쓰다’, (1c)는 『물리』영역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로 ‘물체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공간적 위치를 바꾸다’는 뜻이다. (2)에 사용된 ‘운동’도 (1b)의 의미와 유사하지만 사용되는 틀이 ‘선거 틀’이어야 한다. (1a)의 ‘운동’을 Sullivan(2013: 26)에서 든 예를

2) 이 연구에서 사용한 예문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물결21’ 코퍼스(<http://corpus.korea.ac.kr/>)에서 추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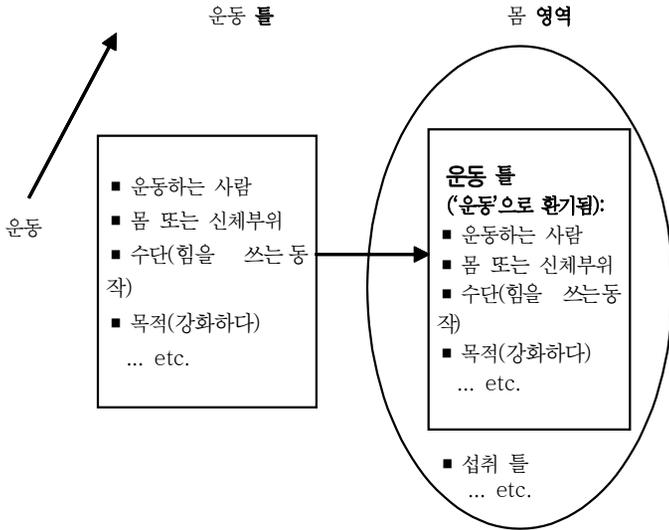
통해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은 ‘틀’에 의해서만 뜻이 통한다. 이 틀은 몸을 가진 사람(운동하는 사람), 힘을 쓰는 동작(수단), 몸을 강화하거나 다른 식으로 향상시키기(힘을 쓰는 동작의 목적)와 같은 요소들을 포함한다. 이런 요소들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운동의 개념은 무의미하게 된다.



[그림 1] ‘운동’ 틀<sup>3)</sup>

[그림 1]은 단어 ‘운동’의 의미가 (1a)처럼 나타나기 위해서 이 틀을 환기시키고, 그 모든 요소들을 화자와 청자에게 잠재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만든다. 화자가 ‘나는 오늘 운동했다’라고 말한다면, 청자는 화자가 몸을 강화하거나 향상시킬 목적으로 어떤 유형의 힘을 쓰는 몸 동작에 참여했던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틀 구조는 상황과 사물, 사건에 대한 정보의 인지적·언어적 도식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운동 틀’은 ‘몸 영역’에 있는 수많은 틀 중의 하나이다.

3) Sullivan(2013: 19) Figure 2.1.



(그림 2) '운동'의 틀과 영역<sup>4)</sup>

[그림 2]는 '운동'이 환기시키는 '운동 틀'과 '몸 영역'이다. [그림 2]에서 화살표는 환기의 과정을 나타낸다. 단어 '운동'은 운동 틀을 환기시키고, 몸 영역은 운동 틀을 통해 환기되며, 이 틀은 이 영역의 부분을 형성한다.<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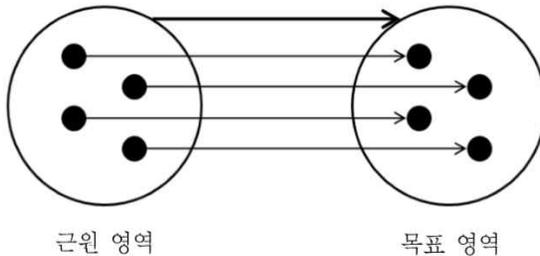
은유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 영역(목표영역(target domain))을 다른 구체적 개념 영역(근원영역(source domain))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라고 부르는데 존재론적 은유(ontological metaphor), 지향적 은유(orientational metaphor), 구조적 은유(structural metaphor)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sup>6)</sup> 은유에서 '근원

4) Sullivan(2013: 26) Figure 2.2.

5) 인지언어학에서 '틀'과 '영역'은 두 용어가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틀'이 '영역'보다는 좁은 개념으로 사용된다.

영역(source domain)’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구체적이어서 구조화된 경험인 반면, ‘목표영역(target domain)’은 우리에게 낯설고 추상적이어서 구조화되지 않은 경험이다(임지룡 2014: 306).

개념적 은유는 추상적인 목표영역을 개념화하기 위해 근원영역의 개념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대응된다. 이 대응관계를 ‘사상(mapping)’이라고 하는데, [그림 3]에서처럼 근원영역에서 목표영역으로의 개념적 전이를 뜻한다(Evans & Green 2006 : 294-295).



[그림 3] 은유적 사상

[그림 3]에서는 근원영역에서 목표영역으로의 사상을 볼 수 있는데, 한 영역 속에는 종종 관련된 많은 틀들이 존재한다. 우리가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이 틀을 통해서 가능하다.

- 6) 존재론적 은유는 추상적인 감정, 경험, 사건 등을 현실에서 존재하는 구체적인 사물로 이해하는 은유이다. 지향적 은유는 추상적인 개념을 인간이 보다 쉽게 지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간 개념인 위-아래, 앞-뒤, 안-밖 등과 관련지어 이해한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은유는 추상적 개념이 구체적 개념으로 체계적인 구조를 부여 받는 것으로, 예를 들어 [정치는 전쟁]과 같은 은유에서 우리 편 여당을 아군으로 상대 야당을 적군으로 개념화하고 두 정당의 대립을 아군과 적군이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는 것으로 체계적으로 구조화한다.

- (3) a. 선거 때만 되면 표를 낚는다고 낚시밥을 던지고 그물을 치고 난리입니다.  
 b. 아니 정말이지, 이왕이면 미인의 낚시에 걸리고 싶죠.  
 c. 사람들은 자신을 낚아올릴 줄 모르는 낚시밥을 삼키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3)은 최경봉(2000: 226)의 예로 그는 의미 확장은 다양한 관련 어휘를 환기시키며 의미 확장이 생산적으로 일어난다고 하였다. (3bc)에서 ‘낚시’의 의미는 (3a)의 틀과 달리 은유 표현에서 다른 틀로 바뀐다.<sup>7)</sup> 즉 [선거운동은 낚시이다], [구애는 낚시이다]라는 은유 표현으로 의미해석이 이루어진다. 이때 ‘낚시밥, 그물’ 등은 ‘낚시’의 영역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낚시’의 의미 확장과 같은 방향으로 의미 확장을 이룬다. 독자나 청자는 영역의 사상을 통해 모든 속성들을 재배치하여 의미를 해석한다. 이 연구에서는 ‘굽다, 잘다, 가늘다’의 의미 해석도 ‘틀’과 ‘영역’에 기초하여 ‘틀’의 확장과 ‘영역’의 확장의 의해 일어나는 관점에서 전개된다.

### Ⅲ. ‘굽다/ 잘다/ 가늘다’의 의미

사전 표제어에 기술된 ‘굽다, 잘다, 가늘다’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전에 나타난 ‘굽다’의 뜻풀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8)</sup>

7) 최경봉(2000: 226)에서는 ‘틀’ 대신 ‘의미장’으로 설명하였다.

8) 이하 『표준국어대사전』은 『표준』으로, 『연세한국어사전』은 『연세』로, 『고려대 한국어사전』은 『고려대』로 약칭함.

〈표 1〉 사전에 나타난 ‘굵다’의 뜻풀이

번호	뜻	『표준』	『고려대』	『연세』
1	물체의 지름 크고 넓다	굵은 팔뚝	국거리로 쓰는 밭치는 적당히 굵어야 한다.	두 돈짜리 순금 반지를 끼고 있는 굵은 손마디가 유난히 돋보였다.
2	부피가 크다	굵은 감자	대추가 알이 굵고 싹하다.	해진이는 사파이어의 굵은 알과 반지 모양새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3	빗방울 따위가 험차고 강하다	굵은 땀방울	굵게 날리는 눈을 보며 나와 동생은 탄성을 질렀다.	빗줄기가 굵어 앞을 볼 수 없었다.
4	글씨의 획이 더 뚜렷하고 크다	글씨가 굵고 시원시원한 게 보기 좋다.	제 이름을 굵고 또박또박하게 써 보였다.	똑같은 크기의 글씨였지만 이번에는 글자가 더 굵었다.
5	생각, 행동 따위의 폭이 넓고 크다	할아버지는 일제 시대에 만주를 오가며 굵게 장사를 하셨다.	나는 짧고 굵게 살다가 가고 싶다.	하루를 살아도 굵게 살겠다는 오기라도 있어야지.
6	(목)소리의 울림이 크다	굵은 목소리	상수의 목소리는 굵고 부드러워 바리톤에 알맞다.	청년은 명운보다 어려 보였지만 굵고 우렁찬 음성을 갖고 있었다.
7	거칠고 투박하다	굵은 삼베옷	이 옷은 울이 너무 굵어서 입을 때마다 목둘레가 빨갛게 일어난다.	인도 면과 품질이 비슷한 중국 면은 짧고 거칠며 울실이 가장 굵다.
8	(주로 ‘구멍’을 주어로 하여) 사이가 넓고 성기다.	어레미는 체보다 구멍이 굵다.		그녀는 구멍이 굵은 어레미로부터 가는 체까지 이삼십 개는 돼 보이는 체를 이고 갔다.
9	(일이나 사건)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다.		뭐 굵은 특종 하나 없을까?	

10	생선의 몸집이 크다.			어찌나 굵은 감성들을 많이 잡았는지 남들에게 팔고도 남았다는 것이다.
11	(주름이) 크고 깊다			시커먼 얼굴에는 굵은 주름살이 입가에서부터 굵게 패여 있었다.

<표 1>은 3종류의 사전에서 ‘굵다’의 뜻풀이를 정리한 것이다. ‘굵다’는 『표준』에서 8항목, 『고려대』에서 8항목, 『연세』에서 10항목으로 뜻풀이 하였다. 각 사전의 뜻풀이에서 ‘물체의 지름’, ‘부피’, ‘빳방울’, ‘글씨’,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 ‘(목)소리’, ‘울의 투박함’ 등을 나타내는 부분에서는 세 사전의 뜻풀이가 거의 일치한다. 하지만 ‘체의 구멍’, ‘사건의 중요성’, ‘생선의 몸집’을 나타내는 부분에서는 사전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다른 두 사전과 달리 『고려대』는 ‘체의 구멍’이 큰 것을 나타내는 ‘굵다’는 설정하지 않은 반면 ‘사건의 중요성’을 나타낼 때 ‘굵다’를 쓰는 것으로 뜻풀이 하였다. 『연세』는 ‘생선의 몸집’, ‘주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단어의 의미를 용법마다 의미가 다른 것으로 설정한다면 사전의 다의어가 너무 많이 설정되거나 사전을 만들 수 없을 것이다.<sup>9)</sup> 그런 측면에서 ‘생선의 몸집’은 1번 항목인 ‘물체의 지름이 크고 넓다’는 의미 항목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사전에 나타난 ‘잘다’의 뜻풀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 용법설(use theory)에서는,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의 용법(use)이라고 주장한다. 곧 단어가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견해를 인정하지 않고, 단어가 사용되는 구체적인 맥락에서의 용법이 그 단어의 의미라고 보는 태도이다. 따라서 용법설은 의미를 개념 또는 영상으로 보는 개념설과는 대립관계에 있는 반면에 화용론적 입장에서 언어표현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한다(윤평현 2008: 48).

〈표 2〉 사전에 나타난 ‘잘다’의 뜻풀이

번호	뜻	『표준』	『고려대』	『연세』
1	알곡이나 과일, 모래 따위의 둥근 물건이나 글씨 따위의 크기가 작다.	알약이 너무 커서 잘게 부순 다음 삼켰다.	감자를 잘게 썰어 주세요.	(크기가) 아주 작다.
2	길이 있는 물건의 몸피가 가늘고 작다.	못이 잘다	어머니가 국을 끓이기 위해 무를 잘게 썰었다.	(두께가) 가늘다.
3	일이 작고 소소하다.	(예문 없음)		
4	세밀하고 자세하다.	잔 주석		
5	생각이나 성질이 대담하지 못하고 좁스럽다.	그는 사람 뉘뉘이가 잘고 경망스러워 보인다.	남자가 대범하지 못하고 잘기는 왜 그리 잔지.	(생각이나 성질이) 너그럽지 못하다. 좁스럽다.
6	시끄럽거나 수다스러운 소리가 더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잣고 좁스럽다.	(예문 없음)		
7	(움직임이) 작고 빠르다.		어린이가 뱀버린을 잘게 혼든다.	[‘잘게’의 꼴로 써서] (움직임이) 작고 빠르다.

〈표 2〉는 각 사전에서 ‘잘다’의 뜻풀이를 정리한 것이다. ‘잘다’는 『표준』에서는 6항목<sup>10)</sup>, 『고려대』에서는 4항목, 『연세』에서는 4항목으로 뜻풀이하였다. 각 사전의 뜻풀이에서 ‘물건이나 글씨의 크기’, ‘물건의 몸피’, ‘사람의 생각이나 성품’ 등을 나타내는 부분에서는 세 사전의 뜻풀이가 거의 일치한다. 하지만 ‘시끄럽거나 수다스러운 소리’, ‘움직임’, ‘일’을 나타내는 부분에서는 사전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표준』은 ‘일이 작고 소소하다’와 ‘시끄럽거나 수다스러운 소리가 더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잣고 좁스럽다’는 두 뜻풀이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문은

10) ‘(‘잔’의 꼴로 쓰여) 시끄럽거나 수다스러운 소리가 더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잣고 좁스럽다’는 Ⅱ의 표제어로 따로 처리되어 있으나 본고에서는 다의어로 처리함.

없다. 다른 두 사전에서는 이 항목은 설정하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서 개념적으로 이 의미는 사용가능하지만 실제 용법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밀하고 자세하다’는 항목 또한 『표준』에서만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움직임이) 작고 빠르다’는 항목은 다른 두 사전에는 설정하였지만 『표준』에만 없다. 다음은 ‘가늘다’의 뜻풀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사전에 나타난 ‘가늘다’의 뜻풀이

번호	뜻	『표준』	『고려대』	『연세』
1	물체의 지름이 보통의 경우에 미치지 못하고 짧다.	십이 머리칼보다도 가늘다.	그녀는 허리며 팔 목이 전체적으로 가늘어서 좀 허약해 보인다.	할아버지는 사정없이 필재의 고사리같이 희고 가는 다리에 매질을 한다.
2	소리의 울림이 보통에 미치지 못하고 약하다.	가는 숨소리	그녀의 노랫소리는 너무 가늘어서 잘 들리지 않았다.	가는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의 격렬함이 서려 있었다.
3	물체의 굵기가 보통에 미치지 못하고 잘다.	가는 모래	할머니의 삼베옷은 아주 곱고 올이 가늘어서 정성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았다.	시장에 가져들랑 곱게 짠 가는 비단을 한 필 사다 주오.
4	빛이나 연기 따위가 희미하고 약하다.	담배 연기가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다.	꼭 막힌 담 사이로 가는 햇살이 들어왔다.	천덕의 눈빛이 가는 등잔불에 반짝 하고 빛난다.
5	표정이 얼굴에 나타날 듯 말 듯 약하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가늘게 미소가 떠올랐다.		
6	(주로 ‘구멍’을 주어로 하여) 사이가 좁고 좁음하다.	구멍이 가는 체를 구하다.		
7	(주로 ‘가늘게’를 풀로 쓰여) 움직이는 정도가 아주 약하다.	숨을 쉴 때마다 어깨가 가늘게 들떡인다.	편지를 받아 권 영혜의 손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가늘게 떨리는 손을 뻗었다.
8	(알갱이가) 아주 잘다.		가늘게 뺨아 놓은 밀가루가 금방이라도 바람에 날릴 것처럼 보인다.	창밖에는 굵지도 가늘지도 않은 빗줄기들이 여전히 추적거리고 있었다.

<표 3>은 각 사전에서 ‘가늘다’의 뜻풀이를 정리한 것이다. ‘가늘다’는 『표준』에서는 7항목, 『고려대』에서는 6항목, 『연세』에서는 6항목으로 뜻풀이하였다. 각 사전의 뜻풀이에서 ‘물체의 지름’, ‘소리의 정도’, ‘물체의 굵기’, ‘빛이나 연기의 정도’, ‘움직임의 정도’ 등을 나타내는 부분에서는 세 사전의 뜻풀이가 거의 일치한다. 하지만 ‘표정’, ‘구멍의 촘촘함’, ‘알갱이’를 나타내는 부분에서는 사전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표준』은 ‘미소’를 나타내거나 ‘구멍’을 나타내는 항목을 설정하였으나 다른 두 사전에는 없고, ‘알갱이’를 나타내는 항목은 『고려대』와 『연세』에서는 설정하였으나 『표준』에서는 설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사전 뜻풀이에서 사전마다 달리 나타나는 이유는 단어가 실제 사용될 때마다 용법설에 기반하여 사용되지만 사전 편찬자는 이것을 유형별로 항목화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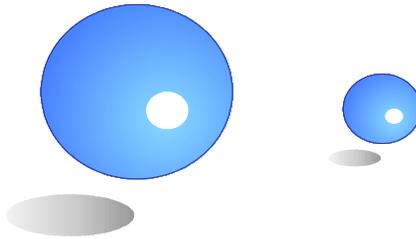
## IV. 틀과 영역에 기반한 의미 해석

### 1. 기본의미

‘굽다, 잘다, 가늘다’의 기본의미는 ‘3차원’의 공간 개념에서 출발한다. 즉, ‘몸피가 {크다/작다}’를 기본의미로 설정할 수 있다(최호철 1993: 113). 그런데 ‘몸피’는 두 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

- (4) a. 양파는 일단 씨알이 굵고 무겁게 느껴질수록 좋다.  
b. 강한 빛깔의 물감을 짜넣고, 섞지 않은 채 굵은 붓으로 마구 칠한다.
  
- (5) a. 감자는 새로 출하된 제주산의 알이 잘아서  
b. 아크릴 물감을 묻힌 가는 붓이 천을 스치는 느낌이 좋다는 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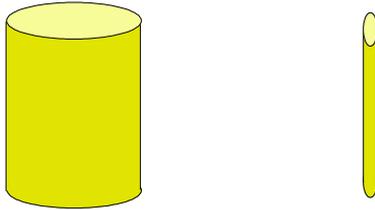
(4)는 ‘긱다’가 사용된 문장인데 (4a)에서는 ‘긱다’의 대상이 ‘양파의 씨알’이고 (4b)에서는 ‘붓’이다. (5)는 ‘잘다’와 ‘가늘다’가 사용된 문장인데 (5a)에서 ‘잘다’의 대상은 ‘감자의 알’이고 (5b)에서는 ‘붓’이다. (4a)와 (5a)에서 ‘양파의 씨알’과 ‘감자의 알’을 ‘긱다’와 ‘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 대상의 ‘몸피’는 [그림 4]와 같이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 ‘긱다/잘다’의 기본의미

[그림 4]<sup>11)</sup>는 둥근 모양의 ‘입체’를 기준으로 ‘몸피’를 판단한다. 즉, 앞의 예문에서 ‘양파의 씨알’과 ‘감자의 알’은 ‘긱다/잘다’가 대립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원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4b)와 (5b)에서 ‘붓’을 ‘긱다’와 ‘가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 대상의 ‘몸피’는 [그림 5]와 같이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11) 김억조(2012: 22)의 [그림 6]



[그림 5] ‘굽다/가늘다’의 기본의미

[그림 5]<sup>12)</sup>는 길이가 긴 물건의 단면 ‘넓이’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굽다/가늘다’가 원형적인 대립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와 [그림 5]에서처럼 ‘굽다’는 ‘잘다’, ‘가늘다’와 대립적으로 나타나는데 ‘알 모양’을 나타내는 물건에서는 ‘굽다/잘다’가 원형적인 대립을 이루고 ‘길이가 긴 모양’의 물건에서는 ‘굽다/가늘다’가 원형적인 대립을 이룬다. 그런데 다음 예문을 살펴보면 원형적인 대립이 항상 유지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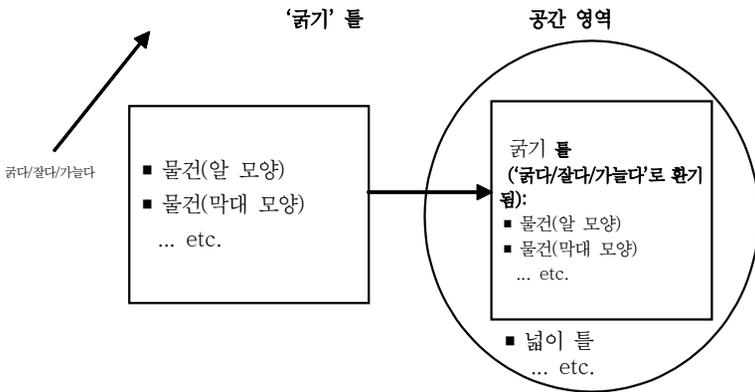
- (6) a. 못이 잘다
- b. 가는 모래
- c. 구멍이 가는 체를 구한다. / 빗방울이 가늘다.

(6a)에서 ‘못’은 ‘길이가 긴 모양’의 물건이다. 그러므로 ‘못이 가늘다’라고 하는 것이 원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전의 예문에서도 ‘못이 잘다’가 사용되고 있다. (6b)에서 ‘가는 모래’라고 하였는데 모래는 ‘알갱이’ 구조로 되어있으므로 당연히 ‘모래가 잘다’ 혹은 ‘잔 모래’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용례에서는 (6b)처럼 ‘가는 모래’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6c)는 ‘구멍이 가는 체’라고 표현하였으므로 ‘구멍’을 ‘가늘다’라고 본 셈이다.

---

12) 김억조(2012: 22)의 [그림 7]

이것은 체의 구멍을 빠져나가는 물건이 연속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체를 빠져나가서 선처럼 연결된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가늘다’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6ab)에서 ‘굵다’의 대립어로 사용되는 ‘잘다/가늘다’가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사전 뜻풀이에서 이 두 항목에 대한 ‘굵다’의 대립어는 ‘잘다’와 ‘가늘다’가 모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굵기’ 틀과 ‘공간’ 영역

[그림 6]에서 ‘굵기’ 틀은 ‘알 모양’과 ‘막대 모양’으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굵기’ 틀은 ‘넓이’, ‘높이’ 틀 등을 포함하는 ‘공간’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영역의 확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2. 확장 의미

‘굵다, 잘다, 가늘다’의 용법은 ‘공간’ 개념에서 먼저 사용되고 인식되므로 공간 영역의 용법이 원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 경험인 공간 개념을 토대로 다른 개념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소리, 수, 인간관계 등 어떤 형이상학적 수준이나 정도를 이해하기 위해 공간 개념을 도입한다. 클라크(Clark)는 공간의 개념을 지각공간(perceptual space), 인식공간(cognitive space), 언어공간(linguistic space)으로 나누었다.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 이해할 때 감각기관을 통해 지각을 한 후 인식을 하게 되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다음은 ‘굽다, 잘다, 가늘다’의 확장 의미는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주름, 미소를 나타내는 ‘굽다/잘다/가늘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름’과 결합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7) a. 깊은 흉터나 굽은 주름은 원하는 만큼 깊이 박피하기가 어렵다
- b. 브래지어 팬티 등의 끝단에 1.5cm가량의 좁고 가는 주름을 단 '프릴 스타일'을 많이 선보였다. / 가죽을 쓴 원피스에는 빗질한 머리카락을 연상시키는 가는 주름이 잡혀 있었다.
- c. 세컨드 브랜드인 플리즈 플리즈 매장에서는 특유의 잔 주름 셔츠나 바지 등이 10만원대 / '미남 배우' 박근형의 얼굴에도 잔 주름이 늘었다.

(7a)는 ‘주름’이 ‘굽다’와 함께 사용되었고, (7b)는 ‘주름’과 ‘가늘다’가 함께 사용되었고, (7c)는 ‘주름’이 ‘잘다’와 함께 사용되었다. ‘주름’은 『표준』의 뜻풀이를 살펴보면 ‘피부가 쇠하여 생긴 잔줄, 옷의 가닥을 접어서 줄이 지게 한 것, 종이나 옷감 따위의 구김살’로 뜻풀이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름’을 ‘선’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본다면 앞서 살펴본 기본의미에 따라 (7ab)의 ‘굽다-가늘다’의 대립이 원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막대 모양의 굽기 틀’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7c)와 같은 용례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한다. 또한 『표준』, 『고려대』

에 ‘잔주름’이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표준』과 『고려대』의 뜻풀이를 비교해 보면 『표준』은 ‘잘게 잡힌 주름’이라고 뜻풀이 되어 있고 『고려대』는 ‘가늘게 잡힌 주름’이라고 뜻풀이 하여 ‘잘다’와 ‘가늘다’가 혼용되고 있다.<sup>13)</sup> 다음은 ‘글씨’와 결합관계에 있는 ‘굵다/잘다/가늘다’를 살펴보기로 한다.

- (8) a. 보도자료 앞머리엔 굵은 글씨로 ‘더 이상의 누드는 없다’라고 돼 있다.  
 b. 낭창낭창 휘어지는 가는 글씨로 원고지에 써 보낸 편지 속에는  
 c. “대개의 경우 우익 글씨는 크고 좌익 글씨는 잘다.”

(8a)는 ‘글씨’가 ‘굵다’와 함께 사용되었고, (8b)는 ‘글씨’와 ‘가늘다’가 함께 사용되었고, (8c)는 ‘글씨’가 ‘잘다’와 함께 사용되었다. (8ab)에서는 써 진 글자 획의 폭이 넓고 좁음을 뜻하지만 (8c)는 한 글자 전체의 크기를 나타낸다. ‘굵다-가늘다’가 3차원 공간 중에서 2차원 평면을 ‘전경화’하여 나타냄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8ab)는 ‘굵기 틀’에서 ‘막대’ 모양을 부각시켜 글씨의 크기를 인식하는 것이다. 반면에 (8c)는 글자 하나 하나를 ‘알’ 모양으로 인식하여 이 알갱이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음에 제시하는 ‘빛’도 마찬가지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 (9) a. 기존 제모 레이저에 비해 빛이 굵고 적용 면적이 넓다. / 빛이 굵다는 것은 많은 파장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뜻이고

13) 이는 앞서 살펴본 기본의미에서와 마찬가지로인데 구조주의 언어학에서는 ‘잘다’와 ‘가늘다’가 서로 어휘 체계상 빈자리(lexical gap)를 채우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어휘 체계상의 빈자리를 채우는 언어 내적인 책략으로는 목표 대상 단어를 다른 부류의 단어로 대체하는 것을 들 수 있다(최경봉 2000: 224).

- b. 어둑새벽을 연상시키는 가는 빛의 실루엣 연출로 무대를 연 뒤
- c. ‘빛’도 잘게 쪼개면 ‘빛의 알갱이’가 된다.

(9a)는 ‘빛’이 ‘굽다’와 함께 사용되었고, (9b)는 ‘빛’이 ‘가늘다’와 함께 사용되었고, (9c)는 ‘빛’이 ‘잘다’와 함께 사용되었다. 『표준』에 따르면 ‘빛’의 원형적 의미는 눈을 통해 감지할 수 있는 자극으로 ‘시각 신경을 자극하여 물체를 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전자기파’이다. 이 전자기파를 공간 영역의 사물로 인식한 것이다. (9ab)에서 ‘굽다/가늘다’가 ‘빛’과 함께 사용된 것으로 보아 ‘빛’을 ‘막대’ 모양으로 인식하여, ‘넓이(2차원의 면적)’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9c)를 통해서도 ‘잘게 쪼갤 수 있는 알갱이’로 인식하고 있다.

다음은 영역이 확장되어 나타나는 은유적 확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목소리 영역에 사용된 ‘굽다/가늘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0) a. 함께 했을 때는 굵은 목소리로 ‘립스틱 질چه 바르고’가 보태졌고  
b. 변성기를 지나 목소리가 굵어졌으며 목소리 굵어진 만큼
- (11) a. 가늘지도 허스키하지도 않은, 특징 없는 목소리였다.  
b. 가늘고 낮은 음성의 서울 말씨

(10)은 ‘목소리’와 ‘굽다’가 함께 사용되었고, (11)은 ‘목소리’와 ‘가늘다’가 함께 사용된 문장이다. 이런 유형의 문장이 각각 326회, 179회 검색될 정도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기본의미에서 ‘굽다’는 ‘알 모양’이나 ‘막대기 모양’의 ‘몸피’에 관해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11)을 통해서 ‘목소리’는 ‘알 모양’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막대기

모양'으로 인식함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은유 [목소리는 막대기 모양 물건이다]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공간 영역'에서 '목소리 영역'으로 사상 되어 대립체계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생각/행동' 영역으로 사상된 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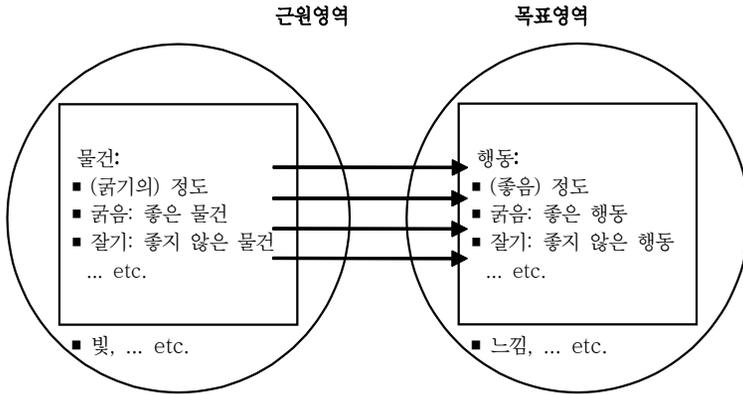
(12) 세상엔 가늘고 길게 혹은 굵고 짧게 산 사람이 많습니다.

(12)는 사람이 산 기간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 기간을 '가늘고 길게' 혹은 '굵고 짧게'로 표현하였다. 인생 전체를 동일한 면적으로 생각하여 '가늘고 길게' 혹은 '짧고 굵게'라고 표현하여 은유 [인생은 물건이다]로 특히, 인생을 '막대 모양'의 물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음 (13)은 더욱 추상적인 '행동'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 a. 우리가 원하는 건 “그래, 일단 해보자”라고 짧게 말하고 굵게 행동하는 리더이기 때문일 터다.

b. 여기서선 성질이나 행동이 잘고 꼼꼼한 데가 있다는 뜻입니다.

(13a)는 '행동'이 '굵다'와 함께 사용되었고 (13b)는 '행동'이 '잘다'와 함께 사용되었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굵다/잘다'는 '알 모양의 몸피'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것이 기본의미이다. 즉, '알 모양'의 물건이 '굵-/잘-'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13)에서는 '행동'을 '굵다/잘다'로 표현하여 은유 [행동은 물건이다]로 볼 수 있으며 '행동'을 '알 모양'의 물건에 비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13)은 [행동은 물건이다]는 은유가 작용하여 다음 그림처럼 해석할 수 있다.



(그림 7) (행동은 물건이다) 영역 사상

[그림 7]에서는 근원영역인 ‘물건’에서 목표영역인 ‘행동’으로 사상됨을 나타낸 것이다. Lakoff & Johnson(1980: 33-34)은 가장 명확한 존재론적 은유가 물리적 사물이나 실체를 사람으로 명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비인간 실체에 대한 경험을 인간의 동기, 특징, 활동에 의해 이해하도록 해 준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인식할 때 주로 ‘굽은 것’을 ‘좋은 것’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것은 목표영역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행동’을 나타낼 때도 ‘굽-’은 ‘좋은’으로, ‘잘-’은 ‘좋지 않음’으로 해석된다.<sup>14)</sup> 신체부위와 같은 요소가 은유적으로 사상될 때, 그것은 [마음은 몸이다]의 ‘마음’이나 [사회는 몸이다]의 ‘사회’와 같은 목표영역의 한 요소로 사상된다. 근원영역에서 동일한 것을 지칭하는 두 개념은 또한 목표영역 속의 한 사물을 지칭할 것이다. 다음 (14)는 (13)보다 더욱 관용화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14) ‘굽-’, ‘잘-’의 가치평가가 대부분 ‘긍정:부정’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은 척도를 나타내는 형용사 쌍 대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 (14) a. 30년 가까이 건설업에서 잔뼈가 굵은 그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내 증권사들은 거래수수료에 너무 의존해 수익을 내기 어렵다.
- b. 이번에 임명된 사람들은 모두 담당분야에서 오랜 기간 잔뼈가 굵은 전문가다.

(14)는 ‘잔뼈가 굵-’가 사용된 문장으로 이 표현은 ‘오랜 기간 일정한 곳이나 직장에서 일을 하여 그 일에 익숙하다(『표준』)’ 혹은 ‘(사람이 어디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 그곳의 관습이나 풍토가 몸에 베다(『고려대』)’, ‘(어려서부터 어떤 일이나 환경 속에서) 자라나다(『연세』)’의 뜻으로 사용된다. 이 표현은 관용적 결합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즉, 관용적 의미의 부분들이 축자적 의미의 부분들과 교감을 이루어 결합되는 관용어를 일컫는 것이다. 예를 들면 ‘answer the door’에서 ‘answer’는 ‘여는 행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으며 이 때 the door는 그대로 ‘문’의 의미를 보존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 누설’의 의미를 갖는 ‘spill the beans’와 같은 관용적 결합 표현에서는 spill은 ‘누설하다’에 해당되고 the beans는 ‘정보’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sup>15)</sup> 이와 같은 관용적 결합 표현에서는 대립어인 ‘가늘다’ 혹은 ‘잘다’가 대립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잔뼈가 굵다’도 관용적 결합 표현으로 사용된다. 대립어인 ‘잘다’와 ‘가늘다’만 나타나는 관용적 결합 표현도 있다. 이처럼 관용적 결합 표현은 두 구성요소가 하나의 단위를 이루기 때문에 의미가 대립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15) 김두식·나익주 옮김(2010: 389-390). 이와 대조적으로 ‘관용구’라 부르는 kick the bucket에서는 kick과 the bucket의 의미가 보존될 수 없다.

- (15) a. 가늘지만 미소를 잃지 않는 입술을 가져
- b. 가는 미소 -- / 미소를 가늘게-

(15)처럼 ‘미소’는 ‘가늘다’와만 사용된다. 다음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사용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6) a. 은행나무 가로수들이 잎을 잘게 흔들며 반기는 적요한 길이 잠깐 이어진다
- b. 치료사는 환자가 손을 잘게 흔들면, 그 리듬과 호흡에 맞춰

(16)은 ‘잎’, ‘손’을 흔드는 움직임의 크기가 작음을 ‘잘다’로 표현하였다. 실제 말뭉치에서도 ‘잘다’만 검색되었다. 그래서 움직임을 나타낼 때는 은유 [움직임은 물건의 크기이다]로 움직임을 ‘알 모양’의 물건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대립어인 ‘굽다, 잘다, 가늘다’가 기본의미로 사용되는 공간 영역에서 ‘틀’이 확장되어 확장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영역’이 확장되어 확장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영역’이 확장 될 때는 다른 영역으로 사상되어 은유로 사용된다.

## V. 마무리

이 연구의 목적은 인지언어학의 틀과 영역에 기초하여 국어 대립어 ‘굽다, 잘다, 가늘다’의 의미 해석에 관해 살펴보는 데 있었다. ‘굽다, 잘다, 가늘다’는 대립어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기본의미

와 확장 의미에서 나타나는 해석의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인 틀과 영역에 기초하여 대립어 ‘굽다, 잘다, 가늘다’의 의미 해석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틀, 영역과 은유에 관해 살펴보았고, 3장에서는 3종의 사전에 나타난 의미를 정리하였으며 4장에서는 앞 장의 논의를 토대로 ‘굽다, 잘다, 가늘다’의 의미를 해석해 보았다. 이 연구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굽다, 잘다, 가늘다’의 3차원 공간 개념에서 ‘몸피가 {크다/작다}’를 기본 의미로 가지는데 ‘굽다, 잘다’는 ‘알 모양’에서 대립적으로 사용되고, ‘굽다, 가늘다’는 ‘막대 모양’에서 대립적으로 사용되었다.

둘째, ‘굽다, 잘다, 가늘다’가 확장 의미에서도 기본 의미의 ‘틀’이 그대로 적용되어 ‘주름’은 ‘막대 모양’의 굽기 틀이 적용되거나 ‘알 모양’의 굽기 틀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굽다, 잘다, 가늘다’가 ‘글씨’와 결합될 때는 한 글자의 획이 넓고 좁음을 나타낼 때는 막대 모양 중에서 2차원 평면이 전경화되어 나타나지만 글자 하나하나를 인식 할 때는 ‘알 모양’으로 인식함을 볼 수 있었다.

셋째, ‘굽다, 잘다, 가늘다’가 공간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사상되어 은유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목소리 영역, 인생 영역, 행동 영역 등에서 은유적으로 사용됨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영역 확장을 넘어서는 관용적 결합 표현에서는 기본 의미에서 나타나던 대립적인 의미가 사용되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대립어인 ‘굽다, 잘다, 가늘다’가 기본 의미로 사용되는 공간 영역에서 ‘틀’이 확장되어 확장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영역’이 확장되어 은유적으로 사용됨을 볼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강연임, 「광고 문구에 나타난 ‘회용적 대립어’ 연구」, 『한국어 의미학』제20집, 한국어의미학회, 2006, pp.305-323.
- 김억조, 『국어차원형용사의 의미』, 한국문화사, 2012.
- 김억조, 「대립어」, 『인지언어학 탐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2019, pp.267-274.
- 남기심, 「반대어고」, 『국어학』제2집, 국어학회, 1974, pp.133-139.
- 문금현, 「대중가요에 나오는 반의어의 의미 양상」, 『국어의미론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국어의미론의 접목과 확장(윤평현 선생 정년퇴임 기념논총)』 2, 2016, pp.193-224.
- 손영숙·정주리·옴김, 『구문 문법』, 한국문화사, 2004.
- 심재기, 「반의어의 존재 양상」, 『국어학』제3집, 국어학회, 1975, pp.135-149.
- 윤평현, 『국어의미론』, 도서출판 역락, 2008.
- 이광호, 「코퍼스를 활용한 반의어의 총체적 목록 확보 방법에 대한 연구」, 『국어학』제56집, 국어학회, 2009, pp.281-318.
- 이민우, 「어휘 의미의 자체대립 유형 연구」, 『어문론집』제11집, 중앙어문학회, 2011, pp.55-74.
- 이승명, 『국어 어휘의 의미구조에 대한 연구』, 형설출판사, 1978.
- 이천택, 「한국어 ‘굽다’와 중국어 ‘粗’의 의미 확장 양상에 대한 대조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제38집,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7, pp.5-33.
- 임지룡, 『국어 대립어의 의미 상관체계』, 형설출판사, 1989.
- 임지룡, 「비유의 성격과 기능에 대하여」, 『한글』제306집, 한글학회, 2014, pp.75-100.
- 임지룡 외, 『인지언어학 탐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2019.
- 전수태, 『국어 반의어의 의미 구조』, 박이정, 1997.
- 최경봉, 「은유 표현에서 단어의 선택과 해석 원리」, 『한국어 의미학』제7집, 한국어의미학회, 2000, pp.215-241.
- 최호철, 「현대 국어 서술어의 의미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Cruse, D.A, and Croft, William(2004), Cognitive Linguistics, Oxford: Cambridge University Press.(김두식·나익주·옴김(2010), 『인지언어학』, 도서출판 박이정).

- Evans, V. & M. Green(2006), *Cognitive Linguistics: An Introduction*,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임지룡-김동환 옮김(2008), 『인지언어학 기초』, 한국문화사.)
- Lakoff, G. & M. Johnson(1980/2003),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노양진·나익주 옮김(1995), 『삶으로서의 은유』, 서광사.)
- Sullivan, K.(2013) *Frames and Constructions in Metaphoric Language*,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bstract

## Construal of ‘Gukda/Jalda/Ganeulda’ Based on Frames and Domains

Kim, Eok-j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emantic construal of 'Gukda/Jalda/Ganeulda', Korean opposites based on the frames and domains of cognitive linguistic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emantic construal of 'Gukda/Jalda/Ganeulda', based on the frames and domains of a cognitive linguistic perspective, by interpreting the metaphor as a meaning extension mechanism. In this study, Chapter 2 examined frames, domains and metaphors as theoretical backgrounds and Chapter 3 analyzed the meaning of 'Gukda/Jalda/Ganeulda'. The findings can be summarized:

First, 'Gukda/Jalda/Ganeulda' have 'body is [large/small]' as a basic meaning in terms of 3D spatial concept: 'Gukda/Jalda' and 'Gukda/Ganeulda' are used as opposites in 'egg shapes' and 'bar shapes', respectively.

Second, the frames of basic meanings are also applied to extended meanings: the thickness frames of 'bar shapes' or 'egg shapes' are applied to 'wrinkles'. When 'Gukda/Jalda/Ganeulda' are combined with 'handwriting', the foregrounding of 2D planes among 'bar shapes' appeared, if the wideness and narrowness of a stroke in a character are expressed, while 'egg shapes' appears, if each character is recognized at a time.

Third, 'Gukda/Jalda/Ganeulda' have metaphorical meanings as they are mapped from spatial to other domains and are metaphorically used in voice, life, behavior domains, and so on. In particular, opposite

meanings appearing in basic ones are not used in idiomatic combining expres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opposites, 'Gukda-Jalda/Ganeulda' have extended meanings as their frames or 'domains' are extended, in the spatial domain in which they are used as basic ones, and they are used as metaphors, as 'domains' are extended.

Key Word: cognitive linguistics, frame, domains, construal, metaphors, opposites, Gukda, Jalda, Ganeulda

김억조

소속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전자우편 : ukjokim@hanmail.net

이 논문은 2020년 01월 30일 투고되어  
2020년 03월 0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0년 03월 11일 게재 확정됨.